

테마칼럼

이성체제

정치브리핑

경제리뷰

문화향기

태봉산·경양방죽의 추억



지건길 <동아대학교 교수·전 국립중앙박물관장>

내 어렸을 적 이곳 광주의 산하(山河)는 참으로 많은 고향을 나에게 심어주었다. 방문을 밟고 나가 마루 끝에 나서면 가까이 바다가 보이는 푸짐하고 아름다운 무등산이 금세 가슴에 안길 듯 다가왔다. 11월 중순께,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하루밤새 산 만명이 허영계 변해 있었는데 그곳에 눈이 세 번 내리면 광주에 첫눈이 내린다면 어른들 말씀에 먼 산의 눈을 간절한 마음으로 헤아리던 일들이 새삼스럽게 떠오른다.

이곳 무등산과 함께 아직 나의 머리에 남아 있는 풍광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태봉산과 경양방죽은 어린 시절의 기억 가운데에서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곳들이다.

전통 훼손·환경파괴 심각

시내 한 복판에서 살던 어린 시절, 여름방학 막바지쯤 동네 녀석들과 어울려 곤충채집을 위해 나선 곳은 제법 나무가 많고 숲이 우거진 지금의 전남대학교 쪽이었다. 이곳에 가기 위해 북동 '굴다리' 위로 올라 철길을 따라 나서면 금방 태봉산이 눈에 들어오고 이곳에 이르러 철길을 내려 오른쪽으로 꺾어지면 대학으로 이어지는 신작로가 나왔다. 여기에서 녀석들과 잠시 헤매다 태봉산에 오르면 꼭대기에 커다란 석함(石函) 한 개가 나뭇길따라 놓여 있었는데 영문을 모르는 아이들은 이것을 '장군 밥그릇'이라고 멋대로 불렀다.(이 석함

은 조선시대 인조의 세자 아기대군-1629년 9월 생-의 태강아리를 넣어둔 태실(胎室)로서 여기에서 나온 묘지(墓誌)와 함께 지금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다.)

말이 산이저 너른 들만에 우뚝 솟아 있는 동그스름한 둔덕 같은 곳이어서 지금 생각하면 흡사 경주 시내의 여지지가 솟아있는 신라시대의 고총(高塚)같은 것이었다. 아무튼 이 때의 태봉산은 어린 기억에도 그쪽의 허허벌판에 우뚝 솟아 우리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왔고 특히 꼭대기에 놓인 '장군 밥그릇'은 묘한 신비감으로 다가오곤 했었다.

태봉산에서 동쪽으로 5리가 채 못 되는 거리에 있던 경양방죽은 아마 만여 평은 필직한 제법 넓은 호수였다. 주변의 하수가 모여 고이는 곳이었겠지만 지금과 같은 정수 시설이 있었을 리 만무하여 물 빛깔은 항상 뿌옇게 흐려 있었다. 게다가 큰바라도 내린 뒤에는 여기저기에 오물이 동동 떠다니기도 했으나 여름철이면 우리들이 잠깐씩 먹고 참방거릴 수 있는 곳이었고 나들이 가족들이 '보트'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또 추운 날이 계속되는 겨울철이면 방판이 되어 썰매를 지치곤 했는데 늦겨울에는 얼음이 깨져내려 종종 익사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었다. 이곳은 우리 집과 내가 다니던 중·고등학교의 길처에 있어서 들레의 뚝방 길에 심어져 있던 팽나무나 버드나무와 함께 방죽이 계절에 따라 달라져 가는 모습들이 지금도 눈에 아련히 남아

있다.

복원 추진 각계의 중지 모아야

60년대 초에 나는 서울로 올라가 그 뒤 대학을 마치고 바쁜 사회생활 속에서 고향소식과도 뜸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언젠가 이곳 광주에 내려왔다가 지난 날 나의 많은 기억이 담긴 이 두 곳이 한꺼번에 사라졌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도 태봉산을 깎아내 그 흙으로 경양방죽을 메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허탈해 했던 일이 바로 잊고 갈까만 하다. 그 자리에 지금의 광주역과 광주시청이 들어서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보다 한참 뒤였다.

당시에 '새마을 운동'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엄청난 우리 전통문화의 훼손과 환경 파괴의 사례가 비단 여기 뿐만은 아니었지만 나에게도 어린 시절의 기억을 송두리째 빼앗긴 것 같은 서운함이 아직까지 나의 가슴과 머리에서 가시지 않고 있다.

근년에 들어 일각에서 두 옛터에 대한 복원의 기운이 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의 아쉬움이 나만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 얼핏 반가운 생각도 들었으나 워낙 큰 역사(役事)일 터여서 사회 각계의 중지를 모아 현명한 결정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구체화되는 '서남해안 발전구상' 기대 크다

목포·무안·영암·해남을 잇는 '서남해안 발전 구상'이 곧 가시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 지역에 오는 2016년까지 정부예산과 민자 등 약 7조 원을 투입해 종합관광단지 및 물류거점을 육성하는 개발계획을 이달 안에 밝힌다는 것이다. 이번 구상은 전남이 낙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서남해안권발전 구상은 그동안 개발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돼 낙후된 전남 서남해안 지역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국토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판단에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개발계획이 완성되는 2016년에 인구 54만 명의 관광·물류거점도시로 성장해 동북아 관광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남해안권 발전구상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과업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정파를 초월한 범 정치권의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53년만에 부활한 '학생독립운동기념일'

광주학생독립운동 77주년을 맞는 감회가 새삼스럽다. 53년만에 '학생독립운동 기념일'로 제 이름을 되찾았고 22년만에 광주만의 행사에서 전국적 행사로 격상됐다. 정부는 3일 오전 10시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유관순기념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페지와 축소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학생독립운동의 명칭에는 우리의 어두운 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부는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해 1953년 '학생의 날'로 제정된 뒤 매년 전국적 행사로 기념해왔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학생들의 의식화를 우려해 1973년 '학생의 날'을 아예 없애 버렸다. 1984년 다시 부활하긴 했지만 광주만의 지방행사로 축소돼 오늘에 이른 것이다.

학생독립운동이 광주만의 운동일 수 없고 민족적 운동임을 인정할 수 있는 12월 12일 서울로 확산되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 사태에서 비롯된 긴장상황은 앞을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학생독립운동의 핵심정신은 민족의 자주와 독립이다.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민족의 자주와 통일, 평화 등 오늘날의 시대상황에 맞게 되살리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어디야 어거여차 / 힘을 내서 노를 저어라 /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 /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 우리 선원들 무슨 팔자가 / 날이 날마다 바다로 나가나... / 어-낭창 가래야 / 어-낭창 가래야 / 간밤에 꿈 좃더니 / 오는 날에 잠원했네 / 정한수를 떠놓고서 / 빌고 빌고 빌었다더니 / 공든 탑이 무너지나 / 물밑에는 고기천지나 / 요만했으면 넉넉하게 / 어서 빨리 죽대질 하고 / 만선 깃발 올려보세-」

'진월 뱃노래'



'진월 뱃노래'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전 어업이 노동요다. 광양 진월면 망덕 어부들은 바다로 노를 저어 나가(노소리) 그물을 올리고(당김소리), 가래가 낚창 낚창 휘어지게 고기를 잡은 후(가래소리) 오색깃발을 꽂고 돌아올 때까지(셀소리), 고된 어로(漁勞) 작업의 전 과정을 응원하며 고했다. 전어잡이는 '뽕잠배' '시라다배'라고 부르던 두 척이 '한 구미'(船團)를 이뤘다. 우두머리인 '사공', 출장이 '발무상', 그물 살을 당기는 '살무상', 고기를 퍼담는 '어버무상', 식사 당번 '하강' 등 12명

/정기태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의로 칼럼

송재욱



대부분의 척추 환자는 수술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 사실 척추에서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의 대부분은 생명과 관련되는 응급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 수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척추 전문병원이라 하면 무조건 수술만 하는 병원으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내원 환자의 대부분은 수술보다는 먼저 통증치료·물리치료·약물치료·신경주사 등 보존적인 치료를 받는다. 내원 환자 중 수술까지 하게 되는 경우는 10% 미만에 불과하다. 비수술적인 여러가지 치료를 해도 증상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수술이 필요한 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척추 수술 할까, 말까!

그러나 척추질환도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디스크가 파열되어 걸지도 못할 정도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신경이 너무 눌려서 오는 하지마비, 특히 발목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경우 ▲대변이나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경우 등에는 최대한 빠른 수술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 돌린 신경을 풀어주지 않고 치료가 지연된다면 심각한 후유증이 남게 된다.

그 이외의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온 환자들이다. 앓아 있기도 힘들 정도의 허리 통증, 10분만 걸어도 양쪽 엉덩이가 빠지려 해 앉아서 쉬었다 가야만 하는 경우, 반듯이 누워도 다리가 절절거리며 잠을 설치는 등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

생각보다 많다. 그러나 통증이 심하고 생활이 불편하다고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정밀검사를 통해 통증을 유발시키는 병변이 확실시 판명되고, 수술을 통해서 증상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수술을 권유하게 된다. 수술여부는 의사 혼자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다. 환자에게 "수술 결정은 의학적 판단이 절반, 환자가 판단하는 부분이 절반"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정밀검사에서 심한 병변이 보이더라도 환자의 통증이 심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굳이 수술을 권유하지 않는다.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가 수술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라는 의미

다. 척추수술은 다른 부위 수술과 달리 같은 질환이라도 여러 가지 다른 수술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큰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고, 내시경 수술처럼 간단한 수술만으로도 환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수년, 수십년 뒤를 생각하는 수술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최소한의 수술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통증치료나 수술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지만 모든 환자가 통증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싶은 것이 의사들의 마음이다. 가장 적합한 치료는 환자·환자가족·의사가 서로 믿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광주우리들병원 원장>

기고

김병원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농림부가 2006 시중유통브랜드 쌀 가운데 1개의 최우수브랜드와 5개의 우수브랜드, 6개의 장려브랜드 등 모두 12개의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했다.

우수브랜드 선정사업은 당초 전국적으로 2천여개의 브랜드 쌀이 유통되고 있는데서 출발했다. 너무 많은 브랜드와 가격정보가 부족해 소비자 구매행태와 신뢰를 혼란을 초래해왔다. 이에 따라 우리 쌀의 경쟁력 향상과 품질 고급화를 꾀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자라는 취지에서 선정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올해 이렇게 선정된 12개 우수브랜드

서 해석이 가능하다. 특별한 기준없이 특정지역 쌀을 선호하던 소비자들의 12대 브랜드 선호율이 높아짐에 따라, 생산자들은 좋은 쌀을 만들지 않고서는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미곡종합처리장(RPC)들도 품질평가를 잘 받기 위한 노력으로 완전미 시설을 보완하거나 신규 설비를 하느라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수브랜드 선정사업이 가져다준 소중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쌀이 더욱 탄탄한 경쟁력을 확보하자면 소비자의 기호와 변화를 감안, 새로운 품종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가공과 저장도 계을

12대 브랜드 쌀 선정사업의 뜻

의 전체 평균점수는 932.5로 나타났다. 1천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볼 때 84.8%로 2005년 76.5%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최우수 브랜드와 장려 브랜드와의 점수격차도 76점 차이에 불과해 미질이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품종단일화와 생산비 지원, 친환경 농업지역 선정 등 쌀산업의 경쟁력 확대를 위한 노력이 속도를 내면서 각 지역별로 미질이 편중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때 전남미가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울바른 평가를 받지 못한 때가 있었으나, 올해 12개 우수브랜드중 5개 브랜드가 전남이 선정된 것도 이같은 맥락에

리 할 수 없다. 쌀알이 촘촘히 달려있는 모습을 본떠 만든 상형문자인 '쌀(米)'자의 유래는 '뽕잠을 뿌려 거둬 따지자 여든여덟 번(八十八) 손을 써야 한다'에서 왔다고 한다. 그만큼 정성과 따미 배야 쌀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다.

올 선정사업에 8개 단계 880여명이 동원됐다고 한다. 우연일까, 아니면 쌀의 소중함을 상징한 필연일까 자못 흥미롭기만 하다.

차체에 우수브랜드 선정사업에 소비자가 생산이력제(GAP)와 친환경 재배 과정을 촘촘히 점검할 수 있는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떻게 제안해본다.

<남평농협 조합장>

창업 강좌 보여주기식 행사 이제그만

지난달 18일 광주에서 주최하는 '벤처창업강좌'에 참석했다. 참가 신청서에 '교육 시작시간 10분전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해 버스를 타고 가다 중간에서 내려 택시로 옮겨 탄 뒤 가까스로 현장에 도착했다.

등록을 하고 교육장에 앉았는데 행사장 절반을 모 여성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어 놀랐다.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이라는 행사에 고등학생이 참석한 것이다.

게다가 아직 학생들이 모두 도착하지 않아 강의의 10분 정도 늦추겠다고 했다.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었다. 강의가 시작된 뒤에 늦게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입구에 마련된 다과를 먹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 휴대 전화로 통화하는 아이들 등 어처구니가 없었다.

강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창업 강좌는 청년실업자나 실직자등 정말 절박한 심정의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별 관심도 없는 학생들로 인원을 불충분 필요가 있을경,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길잡이 행사가 되었으면 한다.

가득이나 어려운 시기에 남비 아닌가. ▲최인승·광주시 북구 풍향동

전시 유물에 카메라 플래시 금지는 기본 상식

최근 아이들과 서울 국립박물관으로 견학을 다녀왔다. 박물관 안 신라미술관 앞을 지나는데, 한 자원봉사자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린 관람객에게 "금관 앞에서 후레쉬 터뜨리면 안 돼요"라며 제지를 했다.

그런데 그 관람객은 "왜 안돼요?"라고 반문하는 것 아닌가. 플래시를 안터뜨리면 사진이 안나온다는 것이다. "플래시를 터뜨리면 유물 수명이 단축되고 손상되요"라고 했는데 그 관람객은 "왜 유리만 가지고 다른사람들은 플래시 터뜨리는데"라고 따졌다.

사실 그랬다. 그 신라박물관에서 관람하는 20여분 동안 관리나 자원봉사자를 피한 플래쉬 세례가 잇따랐다.

안내 방송에서는 끊임없이 카메라 사용 금지를 알리고 곳곳에 한글과 영어로 카메라 플래시 사용 금지 표시가 적혀 있었지만 관람객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대부분 학생들이다.

자원 봉사자들은 유물 안내가 아닌 관람객 제지에 신경을 써야 했다. 기본적인 관람문화까지 못 지켜서야 되겠는가. ▲이인자·광주시 남구 백운동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